

동부권 도청 설치·농업정보센터 확대·개방형 시민당원제

<김용호 후보>

<박희승 후보>

<이용호 후보>

Report

격전지 후보자들 공약 점검 - ④남원임실순창

4·13 제20대 총선의 본선전이 시작됐다. '선거구 재획정', '구도'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번 선거는 그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에 본문에서는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후보들의 공약 소개를 통해 정당한 '정책전'을 유도하고자 각 후보별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선거구별 구도와 변수를 알아보자 한다.

임실·순창·남원(이하 임순남) 선거구는 제19대 총선에서 남원시·순창군 선거구에서 이번에 임실군이 추가된 선거구이다.

이 지역은 8명의 총선 후보자가 출마해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중 가장 많은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으로 후보자로는 새누리당 김용호 후보(38),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후보(52),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56), 민주당 임종천 후보(47), 민중당 오윤미 후보(50), 무소속 오철기 후보(47), 무소속 강동원 후보(63), 무소속 방경체 후보(59) 등이다.

임순남 지역은 강동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자 더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결정함으로써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구도는 강동원 후보와 이용호 후보가 오차범위 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뒤를 박희승 후보와 김용호 후보가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다. 임종천 후보 오윤미 후보, 오철기 후보, 방경체 후보 등도 낮은 지지도 속에서 악전고투하며 금배지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선거구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종선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종선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중 지난 3월24일 강동원 후보가 공감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2.0%p)는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적합도에서 강동원 후보 29.3%, 이용호 후보 26.2%, 박희승 후보 11.1%, 김용호 후보 8.8% 등의 적합도를 받고 있다고 알려고 있다.

또한 지난 3월31일 전주MBC·JTV전주방송·전북도민일보가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1.4%p)에 따르면 후보별 지지도는 강동원 후보 24.9%, 이용호 후보 21.4%, 박희승 후보 15.7%, 김용호 후보 8.6% 등인 걸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을 하지 않거나 모르겠다는 의견도 25.1%를 차지하고 있어 이 지역 선거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후보들의 정세 변화는 언제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가 중론이다.

이 지역 후보들은 임실, 순창, 남원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의 공통 공약 외에도 각 지역별 정책을 약속함으로써 소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표심을 모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먼저 새누리당 김용호 후보는 공통 공약으로 ▲전북도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도청 제2청사 동부권 설치 ▲남원·순창·임실·정읍·새만금으로 이어지는 고속국도 건설 ▲6·25 민간인 피해자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압법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권·교통권 보장 ▲성과제출제 공무원 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개시 등이다.

이 외에도 김 후보는 임실은 산업(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삼진경협(육정호)에 순회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고 있다. 또한 순창은 순창의 특성 산업과 관련, 이 지역 소스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남원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남대를 정상화하는 한편 지역 산악철도를 반드시 개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더민주당 박희승 후보는 박희승의 행복한 임순남 337 공약이라는 이름의 정책 공약을



새누리 김용호 후보



더민주 박희승 후보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



무소속 강동원 후보

내걸어 표밭을 일구고 있다. 박 후보의 337 공약은, 3개 지역(임실, 순창, 남원)의 3대 주요분야(농업 관련,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에 대한 7가지 주요 공약을 합쳐져로 나눠낸 것이다. 따라서 박 후보는 ▲농업정보종합 센터 확대 등 농촌 살리기 ▲지리산 산악철도 개설 및 지역특화 융·복합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교류협력사업 지원과 시립중심 친화도시 지원사업을 통한 인재육성 · 복지증진의 복지 정책 등이 그의 주요 정책이다.

또한 박 후보는 임실은 국민인권 교육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 육정호·삼진강·권역 천황 경 관광특구 조성, 임실치즈 박물관 건립 등을 하겠다는 복안이며 순창은 세계소스산업 거점지구 조성과 장류·치즈 등에 사용기업의 지역 환원을 압법화해 기업들이 순창에 재부자(세금과 기금조성 등)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어 남원은 남원 국제조각 Festival을 유치하고 4개월 생태관광형 지리산 산악철도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는 정치혁신을 필두

로해 경제와 복지에 맞춰진 공통공약과 임실·순창·남원의 지역 현안에 맞춘 공약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개방형 시민당원제 ▲총설한 정당구조 ▲시민정책 평선포럼 운영 ▲젊은세대를 대표 할 수 있는 정당 문화 조성 ▲지역정치의 복원 등을 약속해 야권 총선 주자로서의 신념을 약속하며 ▲중소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육성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따뜻하고 정의로운 복지사회 조성 등을 정책 공약으로 내걸어 실천나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임실은 육정호 순회도로를 개선하고 성수산 산림휴양지개발, 임실 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으며 남원은 동부통합 SOC 내륙국도(새만금·정암·임실·남원)를 건설해 지역 문화 청자 융복합 사업으로 '스토리 도시 남원'을 만들고 순창은 세계소스산업 거점화 지구 조성, 삼진강 레포츠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하고 있다.

무소속의 강동원 후보는 지역 협력의원으로서 임순남의 중단없는 도약 이리며 강동원의 13·10·10·10 약속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13·10·10·10 약속' 13개의 공통 공약과 임실·순창·남원 등 각 지역별 10개의 지역 현안 공약을 의미한다. 강 후보는 13 대 공약으로 정치·경제·관광·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이루르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이명박 정권의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임순남 지역 연계 '지리산·섬진강·휴양관광벨트' 조성 ▲농지재 가격단합 균질화 및 가격상승 억제하기 위한 직접지원 예산 확대 등이 눈에 띈다.

강 후보는 임실은 육정호 순회도로 개선 등을 통한 섬진강·육정호에 관광자원화를 목표하고 임실 국제 치즈박람회를 열어 임실 치즈산업 특구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남원은 지리산 산악철도 조기완공을 첫번 째 공약으로 내걸며 '지리산 고속도로' (정수 IC·남원 인월) 신규 건설추진, 월락정수장 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어 순창에 대해서는 전통발효식품 국가연구소를 순창에 유치 함으로써 소스산업을 육성하고 '순창 보건의료원'의 장비·시설 확충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특별취재반



"사(4)뿐 사(4)뿐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지난 2일
제20대 총선 김제·부안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강상구 후보가 거리의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민주 '더쳤유세단', 최형재 후보 지원 유세

정철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더쳤유세단은 2일 효자동에 위치한 상산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최형재 후보는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주식으로 치면 저평가 우량주이다'라며 최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펼쳤다.

정철래 의원은 "최형재 후보는 당당히 경선을 통해 현역의원을 누르고 선출된 경쟁력 있는 후보"이며 "아곳 전주부터 2번으로 대등되며 정권교체를 이루고 변화의 힘으로 최형재 후보"를 싸밀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진짜배기 정치인" 을 걸러내라"

도내 정가 "지역출신 현역의원 키워야 전북 뭇 키우기 가능"
"나이 등에 상관 없이 능력을 우선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총선을 10여일 남겨두고 진짜 정치인을 걸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선거구의 경우 '현역의원 역할론과 현역의원 물길이론'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대립구도를 형성해 선거판을 이끌고 갈 것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고령이라도 능력위주론' 중심으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는 신구세대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현역의원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

당 후보는 3선의 김춘진 후보(김제, 부안)를 비롯해 재선 이춘석 후보(의산갑), 초선 김운데 후보(전주갑), 김성주 후보(전주병), 국민의당은 재선인 유성엽 후보(정읍고성)와 초선 김관영 후보(군산갑), 무소속으로는 강동원 후보(남원임실순창) 등 7명이다.

이들은 지역출신 현역의원들을 육성해야 중앙에서 전북의 뭇을 키울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역 정가 역시 재선 이상은 돼야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수가 높을수록 텁텁한 인맥을 바탕으로 도발전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는 초선 의원으로는 한계가 따른다는 인식으로 전북도 영남처럼 3선 이상의 국회의원을 더 많이 배출해야 유리하다는 논리다.

반면에 정치신인들은 정치권의 쇠신바람에 걸맞게 새로운 정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령일자리라도 능력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컨대 제20대 총선에서 70대를 넘긴 후보는 무소속 유종근(전주 갑, 72)가 유일하다.

유 후보는 IMF 경제위기에서 나라 경제를 살렸으며 이제는 전주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 후보는 소리문화의 전당 전립, 전북 미술관, 동학혁명기념관 1단계 사업 추진 등 긍진한 사업을 추진했고 고령일자리 능력을 봐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정가 관계자는 "그 후보가 그 후보이면 일단 검증됐던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또 폐기 있는 신진에게 기회를 줘야겠다는 여론과 노련한 중진을 더 밀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상존 한다"며 "문제는 신진이든 중진이든, 고령이든 육석을 가려 '진짜 정치인'을 걸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임정엽 "당신의 뜻 이어받아..." 문자메시지에 박민수 의원 "나와 교감으로 이뤄진거 아니다"

정의당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군산서 조준호 후보 지원유세

천호선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는 4일 군산을 방문해 조준호 후보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

이날 천 위원장과 오현숙(도당위원장) 비례대표 후보는 군산 수송동 롯데마트 사거리(수송동 883)에서 합동유세를 통해 지역 민들의 표심을 모을 계획이다.

이후에는 군산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정의당 전북도당은 6일,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오 후보와 윤소하 비례대표 후보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독려와 사전투표와 정당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 캠프에 문자메시지에

민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의원은 이와관련 "임 후보 캠프

의 문자메시지가 박 의원과의 교감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당시 다른 민족 그럴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당 임 후보가 보낸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한다.

앞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도내 총선 선거인수 151만9천여명

제20대 총선 전북지역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151만9,273명으로 확정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실시하는 총선 선거인수는 전체 인구의 81.3%

인 총 151만9,273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유권자수 147만6,329명보다 4만9,948명(2.9%)

이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는 남자가 74만8,388명, 여자 77만8,859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만 19세 2만5,662명(1.7%), 20대 21만7,849명(14.3%), 30대 22만9,573명(15.1%), 40대 29만8,423명(19.6%), 50대 29만7,178명(19.6%), 60대이상이 45만586명(29.7%)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완산구의 선거인수가 31만7,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익산시 24만14,638명, 군산시 22만3,276명 등이며 장수군은 1만9,942명으로 가장 적었다.

/특별취재반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